

정부, 'K-AI 패키지' 띄운다… 국내기업·기술 해외진출 확대

대외경제장관회의

‘K-AI 패키지 추진전략’ 발표
교통 등 7개 분야 사업메뉴 마련
대미통상현안에는 국익관점 대응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및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이 패키지는 인프라에 특화한 AI 설루션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구조다. 수자원과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했다.

국내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개발 협력 수단과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도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유무상 연계로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양성·기술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설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

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AI 패키지와 함께 대미통상현안, 그린경제협정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 조치 및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측의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본적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방글라데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서남아 핵심시장이자 서남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목소리

금융위·금감원 등 비공개 업무보고
금리상승 대출 피해 최소화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금융위와의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목요일(16일) (당국 이) 발표한 내용(보안책)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부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지난 16일 경제·금융당



유동수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 수장들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었으며,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반기에 정부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은행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금

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이 내년엔 시행되면 효과에 대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입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인 말씀이 있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 정부위원들은 금감원과의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과의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편 정부위는 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대로 정부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위와 당정 간담회에는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란 반다라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뒤편으로 폭발로 인한 거대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란, 무력충돌 긴장감 고조

유가 불안정 등 세계 경제 ‘먹구름’

양측 연일 군사작전… 휴전 유명무실
유가 급등·물류 차질 등 우려 확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우선 진정되어 가던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했다. 또 공급망 불안과 물가자극 등의 경기 하방요인도 연쇄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주 미군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기습 공격을 수차례 주고받았다. 미군 병사가 전사한 데 따른 보복 공습과 혁명수비대의 주변국 미군기지에 대한 재보복 등 군사작전이 잇따라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유명무실화됐다.

이 같은 확전 양상은 유가에 즉각 반영됐다. 20일 북해산브렌트유 선물(9월 인도분)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하순과 이달 상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80달러대에 진입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한국시간 오후 3시20분 기준 각각 배럴당 90.94달러, 84.04달러에 거래됐다.

각국 유조선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원유 공급망 차질이

빛어지면 각종 원자재·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구조다.

호르무즈에 대해 홍해를 거치는 수송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후티 측에 홍해 관문 봉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하루 700만 배럴가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통과하는 세계 핵심 해상 운송로다.

영국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두 해협이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차질을 빚거나 사우디 송유관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예멘 후티는 지난 13일 사우디 공항에 폭격을 가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사우디가 후티와 맺은 휴전 협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19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9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를 비롯해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존 림 대표 “글로벌 CDMO시장 입지 강화”

》1면 ‘삼성바이오 2.7조…’서 계속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탐색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 송도에 7조원을 투입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첨단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모달리티(치료 접근법) 확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생산 역량도 강화한다. 제1캠퍼스의 1~4공장을 풀가동하는 데 이어 제2캠퍼스의 5공장도 램프 업을 단계적으로 이뤄냈다. 1~5공장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역량은 78만4000리터(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오는 2032년까지 제2캠퍼스 6~8공장이 완공되면 총 132만4000리터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4월 미국에서는 글로벌 지리적 영토를 늘렸다. 첫 해외 생산 거점인 미국 메릴랜드 록빌 공장은 6만리터(L) 규모의 원료의약품 생산공장이다.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체 의약품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인프라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폴리펩타이드 그룹 양사의 독보적인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CDMO 시장에서 K바이오 기업 입지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se236@